

‘민족’ ‘민족주의’란 단어의 수난 시대다. 한국 서울의 종로에서 10년을 살면서 한국에 대한 잡지와 책을 내고 있다는 한 미국인 문명비평가의 최근 펴낸 책, <대한민국 사용 후기>에는 ‘한국에 친박한 민족주의가 넘친다’고 일갈한다. ‘사용 후기’라니? 대한민국이 무슨 일용잡화나 전자제품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탈북자에겐 도도하면서 측구시합만 있으면 한민족 수호자나 된듯하고, 편파편정이라도 있으면 해외 사이트를 마비시키고... 독도문제만 나오면 반일시위를 하고...’ 등등을 친박한 민족주의의 본보기로 내 놓았다.

독도문제가 나오면 위장자들에게 ‘그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가져가 해결하라’ 해이자 왜 손가락 자르고 일장기 불태우고 그러느냐며 한국인들에게 제법 민감한 부분까지 건드린다.

여기서 그의 불쾌한 발언에 ‘흰 눈’만을 뜯 수 없는 것은 그가 오늘의 한국 민족주의의 일면을 거울에 비추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제법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독일의 히틀러나 캄보디아의 전 대통령 킬레트비치 등이 ‘민족 감정’을 선동해 잡시나 제미를 보였던 그런 민족주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더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본지 논설위원

‘민족주의’ 품격을 높여라

우나 ‘민족’이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지고 지선의 것도 아니며 그 개념 자체가 근대에 들어 형성되었을 뿐이라는 역사학자들의 주장도 있었다. 세계화 시대에 무슨 민족? 이러면서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어느 작가의 ‘융합한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의 품격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품격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를 진정 정의로운 사람이 내 걸었다면 ‘정의’의 품격은 분명 고귀해 질 수 있었을 것인데 불행히도 지난 군사정권 가운데 하나가 내 걸었던 구호였으

로 ‘정의’의 품격이 상당히 추락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민족’과 ‘민족주의’도 최근 몇 년 동안 순수성이 의심되는 정치적 구호와 선동에 시달려다 보니 그 품격이 이제 ‘천박함’으로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누군가 우리에게 ‘한민족은 무엇이며 한민족적인 것은 또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의 내용을 ‘민족’ 또는 ‘민족성’ 우리의 ‘정체성’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동안 이용당하기 쉬운 ‘민족 감정’을 부추겨 권력 추구의 정치적 선동

에 써 오고, 여기에 생각 없이 동조해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민족주의’가 천박해 질 수밖에... 그러나 단어의 품격, 즉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다행이랄까 요즘 한국적인 것, 5천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선택,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체화시켜 온 원형적인 것에 대한 탐구와 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민족’이나 ‘민족주의’의 뜻과 품위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믿는다.

종류나 선도 무속 등 자생적인 것은 물론 밖으로 활짝 열린 창으로 받아들여 체화한 유물도 삼교, 여기에 근대적 서양 종교까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정신적으로 이처럼 평화롭게 열린 민족이 어디 그리 흔한가. 이른바 ‘한류’라는 것이 이런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이를 잘 발전시키면 ‘한국적인’ 그 무엇들이 차츰 세계성을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세계화는 이렇게 남과 나를 섞으며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편협함이나 배타성 같은 부정적인 것을 찾을 수 없다. 할머님 남과 담을 쌓아 이득을 얻으려는 식의 선동이 끼여들 자라도 없다.

천박해진 ‘민족주의’에 원래의 품격 찾아주는 일이 급하다.

어떤 학부모들은 마음의 상처를 달랠 길 없어 전학하거나 아예 먼 곳으로 이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내 아이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해 보니 가슴이 답답해 온다.

미래의 주인공 학생들이 종교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교사 양성과정엔 인권, 특히 종교인권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 현직교사들을 위한 연수교육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까지 인류 역사의 배경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종교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종교적 편파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교사나 공직자의 인권의식 결여와 그 폐해가 어떻게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인권단체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주로 외국인·여성·장애인에 대한 비하나 차별 등 약자와 소수자의 문제, 그리고 두발·교복 자유화 등의 학생자

주권, 체벌·폭력 등 신체 관련 문제들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는 데 그칠 뿐, 양심과 종교의 자유 같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이 아쉽다. 차체에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 하에 종교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종교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교육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불자의 눈

제2의 조승희 ‘새싹포교’로 막자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온 세계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다. 범인 조승희가 한국인 교포란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감정은 매우 복잡하다. 무엇보다 조승희가 한 방송사로 자신의 범행동기를 알리는 동영상 등을 보냈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연일 경악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탄과 놀라움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진흙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물을 정화하는 연꽃이 있듯이 우리는 이 처참한 세상에서 연꽃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종교인 특히 불교계에 엄청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간관과 세계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예고 한 ‘상징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단이 올해 들어 유례없이 어린이 포교에 힘을 쏟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계종의 경우 최근 어린이 청소년 시설을 수탁하여 최고의 운영을 다짐하고 있고 청소년 포교와 관련한 대안들도 다양하게 마련한다고 하니 든든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어린이 법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사찰은 전체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

새싹포교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비해 현실적인 여건들이 뒤쳐져 있다. 인제불사, 전인교육, 인간방생 이런 말들은 결코 구호가 아니다. 당장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사라지는 중요한 당면과제들이란 점을 명심하자.

불자의 신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봉축 표어다. 오늘날의 불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삶의 기준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처럼’이라는 한 마디일 것이다. 불자라면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져 봐야 한다. 살아가다가 화가 솟구칠 때마다 ‘이 경우 부처님도 화를 낼까?’라고 자문해 봐야 한다.

불자의 삶은 항상 부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의 기준선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꽃피듯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거짓이나 가식, 죄 같은 것이 끼여들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뿐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알 뿐 의식의 방향이 부처님께 벗어나 있으면 일거수 일투족이 악업이 될 뿐이다. 선업의 삶은 바로 부처님을 향해 조준된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표어는 모든 불자의 생활신조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봉축 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 모든 불사가 우리들이 부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원력의 표현이고 우리 스스로 부처님처럼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봉축기간이 되도록 모든 불자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쁘다.

‘종교자유’ 칼럼

8. 교사의 종교편향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교육현장에서의 종교 강요 및 차별 행위는 교사의 개인적인 행위와 학교 차원 또는 제도적 관행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타종교인 학생들을 차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팔아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했다던 어느 불자의 얘기가 생각난다. 학부모로서 내심 당황했겠지만 그렇다고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해서 선교 의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받아보는 학부모의 종교가 타종교일 경우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려 깊은 교사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좋은 말씀을 실어 보내겠다는 소박한 뜻이라면, 굳이 성경 구절만 인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불경, 전래속담, 고사성어, 기타 명언·명구 등에서도 얼마든지 한 구절씩 소개할 수 있지 않은가. 또 그레아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특정종교 경전 구절을 써 보낸다면 분명히 선교 의도를 드러낸 것이므로 종교에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할 교사로서의 본분을 잊은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글자로만 전달되는 경우는 그레도 나온 편이다. 가령 교사가 특정 종교 신자



서울 S교회 유치원의 수업정면(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라고 잘 알려진 경우, 꼭 확인해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학생의 종교를 묻는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의도를 짐작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회에 안 나가니?” 하면서 마치 교회 다니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투로 묻는다면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관계나 지위를 이용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지속적으로 성경을 직접 읽어 주거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방학숙제로 성경학교를 다녀오라

“교회 안 나가니?” 선생님의 질문 학생에겐 감당 못할 ‘부담’

거나 일요일에 교회에 다녀와 독후감과 일기를 제출하면 스티커와 상을 주는 교사가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인성지도를 넘어서서 분명히 특정종교의 노골적인 강요이므로 공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교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편협한 언행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질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이

나 그 가족의 종교가 타종교인 것을 알고서도 교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마귀의 종교를 믿다니...”라고 악의적인 말을 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몇 해 전 부산의 어느 스님이 들려준 그 절 정도의 얘기가. 신심 있는 불자였던 할머니를 따라 집 근처 절에 자주 다녔던 초등학생 손자가 어느 날 아프다며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 영문을 몰라 속상해하던 부모는 담임선생님이 “불교는 나쁜 종교이고 불교 믿으면 지

옥 간다”고 한 말에 아이가 충격을 받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학교에 항의하였다. 학교장은 결국 그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전근시켰다고 한다.

오욕하던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학교 가는 것마저 싫어했을까. 특 단전 선생님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어린 학생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나 혼란을 생각이나 해보았을까.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미술원 (주)·야 상담합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창빌딩 1층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음양지기 저자 이종두 원장의 천기비법 대공개 강좌

일 자	과 목	교 육 내 용
1주차 이론1	1. 동양철학	- 일리삼현론, 삼극론, 기와 효의 상관관계
	2. 효의 원리	- 효와 후손의 사주 운명과의 상관관계
	3. 풍수	- 무묘생존시 후와 후손의 운명과의 상관관계
	4. 수액	- 조상 유택이 후손 안택(집, 사업)에 미치는 영향
	5. 지기학	- 풍수지리학 관상법의 이해
	6. 기와 혈	- 역학/사주와 기의 연관성
	7. 운과 기	- 수액 찾는 방법, 수액을 100% 차단하는 방법
	8. 양명기서	- 수액과 지기의 상관관계
2주차 이론2	1. 양택론	- 양기, 음기
	2. 음택론	- 건강질병, 장수, 삼재유환, 재운/관운과 기
2주차 실 습	1. 양택실습	- 양명기서 및 지기가 인체/동작물/동물생육에 미치는 영향
	2. 음택실습	- 장차리/주택재운/학업성적/사업경과 활(양)기
3주차 실 습	1. 양택실습	- 주택 지기(양기/음기)의 활(양)기 및 명명 처방 방법
	2. 음택실습	- 유택(매장, 남궁)의 지기/수액/혈 진단 및 실습
4주차 총 합	1. 인체건강진단방법 강의 및 실습	- 유택의 활(양)기 및 명명 처방 방법
	2. 종합 정리 및 질의응답, 교육이수증 수여 및 우수교육생 포상	

◆ 주 관 : 음양효혈풍수지리교육원(효도원)
◆ 일 시 : 2007년 4월 29일부터 4주간 매주 일요일 11시 ~ 18시 (4일 교육, 증식 제공)
◆ 강 사 : 음양지기의 저자, 한국음양효혈풍수지리학회 회장 이종두 직접 강의
◆ 참 가 비 : 60만원 (교재 2권, 엘로드, 양명기서 사은품 증정)
◆ 입금계좌 : 우체국 014167-01-018064 박서연(효도원)
◆ 접 수 : 전화접수, 입금순으로 선착순 50명 마감

음양효혈풍수지리교육원 <http://www.jigi.org> 02)579-2560